

列子를 읽음(一)

金鼎高

列子는 東洋哲人中에 나의 사랑 하는 한사람이다. 그것은 彼가 哲學者로서의 勳業보담도 彼가 哲學者로서의 人格이다. 彼가 元來斷片的 感興이나 沒批判的 詩想에 浮動함으로만 滿足하게 생각하는 幼淺한 吟詠家流가 아닌 것은 勿論이지만 同時에 空疎한 概念의 案排로만 能事畢矣생각한 理論家만도 아니다. 或人이기 그것은 列子뿐아니라 東洋哲學 或 東洋哲人の 共通한 特徵이라 하고 말할 줄도 내가 모르난 바 아니다. 그러다 나는 決코 或人の 云々하는 意味로만 列子를 論議하는 것이 아니다. 彼는 實노 朦朧한 感情으로 明快한 理性을 懾伏하지도 안헛고 明快한 理性으로 朦朧한 感情을 逼迫하지도 안헛다. 彼가 眞理에 對한 態度는 참으로 索隱行恠의 譏刺를 招致할만큼 嚴肅하얏지만 理想境에 對한 憧憬은 또한 傾天倒海의 讚辭를 바들만큼 烈熱하얏다. 그래서 彼의 人格은 一面니 深玄한 哲學이였고 一面은 絢 한 詩文이였다. 彼의 哲學은 邃秘한 理想과 銳利한 論法은 彼의 知性을 彼의 文章은 奇拔한 意匠과 雄麗한 藻思는 彼의 情感을 想像할 수 있다. 前者는 天瑞 力命의 哲學的 偉作 後者는 湯問 周穆王의 快著를 產出한 것이다. 그런데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보담도 彼의 疑獨이란 것이다. 湯問 周穆王 等の 雄麗한 文章의 彼의 理想境에 對한 憧憬의 情熱니 橫溢한 것이라면 彼의 疑獨은 深嚴한 知性の 光이다.

疑獨은무엇?

西洋에도 세칼트 칸트以前의 形而上學은 大概 다 獨斷的이였다. 或은 想像的觀念 或은 宗教的 信條嚴密한 認識論的 批判니 快한 詩的 信念을 基礎로 하고 成立된 것이다. 그 中에 論理的 證명의 企圖가 全然없엇든 것은 아니나 亦是企圖는 企圖에 不過하고 그 本質的 根據는 恒常沒批判的무엇이였다. 그런데세칼트의 懷疑的 方法論과 칸트의 批判的 方法論을 顯出케 한 것이다. 前者는 疑의 極을 追하여 存在의 根據를 發見하고 後者는 知性の 限畧을 밝혀서 形而上學의 不可能을 吶喊하[얏]다. 그런데 西洋哲學이야 오직 眞理을

道破한 것이라고 斷言하는 것은 아니다. 그 發達段階를 考察하면 東洋哲學의 現狀은 今日도 오히려 세칼트 칸트가 現出하지 안헀다. 그것은 또 各其特徵 니잇섯고 同時에 그 特徵을 따라 發達의 經路도 多少다르겠지만 그런고로 發達의 經路를 比較해서 東西哲學의 優劣을 評斷하라는 것도 勿論아[니]지 [만] 左右間西洋哲學上意味의 嚴密한 認識論的 批判니 今日까지 없엇는 것은 事實이다. 그런데 더구나 支那哲學은 思想의 幽微한 點으로 보아서 印度哲學보담 劣後한 것은 勿論이지만 그 組織方面形式의 整齊嚴密한 點도 오히려 또한 印度哲學에 遜讓할 수 맞에 없다.

그래서 思想의 奧妙하기 印度보담 못하고 形式의 精緻하기 西洋보담 못한 支那哲學의 特色은 印度나 西洋에 나서는 볼 수 없는 무슨 特色이 有乎? 無乎? 이것은 本論의 範外에 屬한 問題임으로 그만두고 다만 支那哲學의 世界學界에 對한 位置와 列子의 支那哲學에 잇서서의 地位를 조금 말해둘 必要가 있다. 上述한마와 갓치 支那나 印度東洋哲學은 아직 認識批判的 鍛鍊을 未經한 現狀에 잇고 더구나 支那是 印度보담도 이 點이 稀薄하다. 그런데 支那哲學은 一種畸形의 發達이라 할가(?) 宋明時代의 多少精細한듯한 發達이 없는것도 아니나 그 思想의 自由로운 自然스런 發展은 도로혀 멀니 멀리 千載의 蜺麟 以前을 遡上하여 先秦時代春秋時代에 잇섯다. 方今도 오히려 支那思想界의 一面을 支配하는 大同主義니 大康主義니 하는 것지라로 春秋時代 卽公羊氏의 春秋傳旨를 演繹한데 不過하지만 그 쏘아니라 二千有載의 支那思想界는 모두다 春秋時代湧出한 모든 思想의 流波의 縱橫起化에 不外한것이다. 春秋時代는 實노 支那二千年文明에 프로그램을 定한 時代로 해도 無妨할것이[며] 二千年史潮의 衆源니 競發하든 時代로 보아도 相當할 것이다. 그것은 思想쏘만니 아니라 形式方面을 보아서는 더구나 더 後代에는 볼 수 업는 努力이 잇섯다. 決코 公孫龍 墨翟氏네의 論理學的 勞作과 莊周韓非氏네의 整理한 論陳의 容儀를 春秋以後에는 다시 보지 못하겟다.